

# 국내 지반특성에 적합한 지반분류 방법 및 설계응답스펙트럼 개선에 대한 연구 (Ⅲ) - 설계응답스펙트럼 개선방법

## Development of Site Classification System and Modification of Design Response Spectra considering Geotechnical Site Characteristics in Korea (III) - Modification of Design Response Spectra

윤종구\* 김동수\*\* 방은석\*\*\*  
Yoon, Jong-Ku Kim, Dong-Soo Bang, Eun-Seok

### 국문요약

동반논문(II-지반분류 개선방법)에서는 지반의 고유주기를 기준으로 지반을 분류하는 방법이 국내 지반조건에 적합한 지반분류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지반분류 방법을 개선하여도 해석결과와 평균 스펙트럼 가속도 값과 재산정된 응답스펙트럼과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는 설계응답스펙트럼을 작성에 필요한 증폭계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변경해야 해결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지반조건에 적합하도록 증폭계수를 재산정하기 위한 적분구간 변경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장주기 영역의 증폭계수  $F_v$ 의 적분구간은 현재 주기 0.4초~2.0초에서 주기 0.4초~1.5초로 변경할 경우 해석결과와 평균 스펙트럼 가속도 값과 설계응답스펙트럼이 비교적 잘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기존의 방법보다 국내 지반특성에 더 적합한 설계응답스펙트럼을 작성할 수 있었다.

주요어 : 증폭계수, 증폭계수의 재산정, 적분구간, 응답스펙트럼, 지반의 고유주기, 지반분류

### ABSTRACT

In the companion paper (II, Development of Site Classification System), new site classification system based on site periods ( $T_g$ ) was recommended for regions of shallow bedrock depth in Korea. Despite the site classification method was improved, the response spectrum would be required to be modified by adjusting the integration interval to calculate the site coefficients because the response spectra did not match well the average spectral accelerations obtained by site response analyses in the range of long periods. In this paper, new response spectra for each site categories were determined by adjusting the integration interval of long period site coefficient  $F_v$  from 0.4~2.0 to 0.4~1.5 second. It matched well the average spectral accelerations and new response spectrum, and it was also improved compared to the current site classification system.

**Key words** : site coefficients, modification of site coefficients, interval of integration, response spectra, site period, site classification

## 1. 서 론

동반논문(I-국내 내진설계기준의 문제점 분석)에서는 국내 지반에 대한 지진응답해석 결과와 설계응답스펙트럼을 비교한 결과 단주기와 장주기 영역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여 국내 지반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내진설계기준의 지반분류 방법 및 설계응답스펙트럼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sup>(1)</sup>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반논문(II-지반분류 개선방법)에서는 현재 지반분류 방법인 상부 토층 30m의 평균 전단파속도( $V_{s30}$ ), 지반의 고유주기 그리고 기반암 깊이를 이용하여 지반을 분류하는 방법에 대하여 비교·검토하였다. 검토한 결과, 지반의 고유주기를 이용할 경우 동일한 지반그룹에서 개별 지반들이 서로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현상을 개선할 수 있었고, 증폭계수와 지반분류 기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추세선의 경향

성 면에서도 입력 지진가속도의 증가에 따른 지반의 비선형 거동을 효과적으로 나타내어 국내 지반조건에 적합한 지반분류 방법으로 제시하였다.<sup>(2)</sup>

그러나, 지반분류 방법을 개선하여도 해석결과와 스펙트럼 가속도의 평균값과 재산정된 설계응답스펙트럼과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설계응답스펙트럼을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증폭계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변경해야 해결할 수 있다. 이는 국내 내진설계기준이 미국의 서부해안지역의 지반조건에 적합하도록 작성된 기준이고, 설계응답스펙트럼을 작성하기 위한 증폭계수를 산정하는 방법도 미국의 지반조건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지반조건에 적합하도록 지반증폭현상을 평가할 수 있는 증폭계수의 계산방법을 검토하여, 국내 지반에 적합하도록 적분구간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변경된 증폭계수의 적분구간을 이용하여 설계응답스펙트럼을 재작성하였다. 재작성된 설계응답스펙트럼의 경우 증폭계수의 적분구간을 변경하기 전보다 국내

\* 정회원·한국유지관리(주) 지반설계사업부 이사(대표저자:hawaiiyoong@kmctech.co.kr)  
\*\* 정회원·한국과학기술원 건설및환경공학과 교수  
\*\*\* 정회원·한국과학기술원 건설및환경공학과 박사과정  
본 논문에 대한 토의를 2006년 6월 30일까지 학회로 보내 주시면 그 결과를 게재하겠습니다.  
(논문접수일 : 2006. 1. 6 / 심사종료일 : 2006. 3. 21)

지반특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증폭계수 산정방법

국내 내진설계기준의 설계지진력 산정방법의 근간이 된 1994 NEHRP에서는 단주기 영역 증폭을 통제하는 증폭계수  $F_a$ 와 장주기 영역 증폭을 통제하는 증폭계수  $F_v$ 를 이용하여 설계응답스펙트럼을 작성하고 있고,  $F_a$ 와  $F_v$ 는 각각 식 (1)과 식 (2)를 이용하여 계산되었다.<sup>(3),(4)</sup>

표 1 지반의 고유주기를 이용한 지반분류 방법

지반의 종류	지반분류 조건
$T_A$	$T < 0.10 \text{ sec}$
$T_B$	$0.10 \text{ sec} \leq T \leq 0.30 \text{ sec}$
$T_C$	$0.30 \text{ sec} < T \leq 0.50 \text{ sec}$
$T_D$	$0.50 \text{ sec} < T$

$$F_a(RRS) = \frac{R_{soil}}{R_{rock}} \frac{1}{0.4} \int_{0.1}^{0.5} \frac{RS_{soil}(T)}{RS_{rock}(T)} dT \quad (1)$$

$$F_v(RRS) = \frac{R_{soil}}{R_{rock}} \frac{1}{1.6} \int_{0.4}^{2.0} \frac{RS_{soil}(T)}{RS_{rock}(T)} dT \quad (2)$$

여기서,  $R_{rock}$ 와  $R_{soil}$ 의 값은 각각 진원(fault)에서 암반노두와 지표면까지의 거리(hypocentral distance)를 의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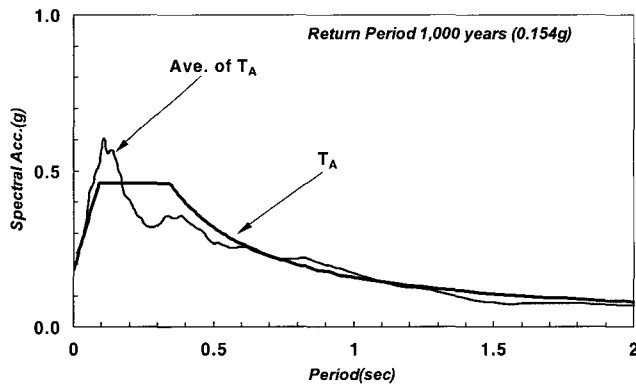
고, 본 연구에서는  $R_{soil}/R_{rock}$ 은 진앙에서 거리가 먼 경우 1.0으로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RS_{soil}$ 은 구조물의 주기  $T$ 에서 지표면의 스펙트럴 가속도 값이고,  $RS_{rock}$ 은 암반노두의 스펙트럴 가속도 값이다. 즉,  $RS_{soil}/RS_{rock}$ 은 주어진 주기  $T$ 에서 기반암과 지표면의 스펙트럴가속도비로서 RRS (Ratio of Response Spectra)로 나타낸다. 따라서,  $F_a$ 는 주기 0.1초에서 0.5초 사이에서 지표면과 암반노두의 스펙트럴가속도비(RRS)의 평균값을 의미하고,  $F_v$ 는 주기 0.4초에서 2.0초 사이의 RRS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1994 NEHRP에서는 식 (2)의  $F_v$ 를 구할 경우 RRS의 평균값을 이용하지 않고, 평균값 + 표준편차( $\sigma$ )의 값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이는 장주기 영역에서 RRS 값의 산란정도가 매우 심하고 일반적으로 장주기 영역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경우 중요한 구조물들이 많기 때문에 장주기 영역의 스펙트럴 가속도의 증폭을 보수적인 관점을 견지하였기 때문이다. Dobry 등(1999)은 위와 같은 사항을 설계기준에 반영하기 위하여 평균값 보다 평균값 + 표준편차를 이용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F_v$ 를 계산하였고, 이를 현재 이용되고 있는 미국 내진설계기준에 적용하고 있다.<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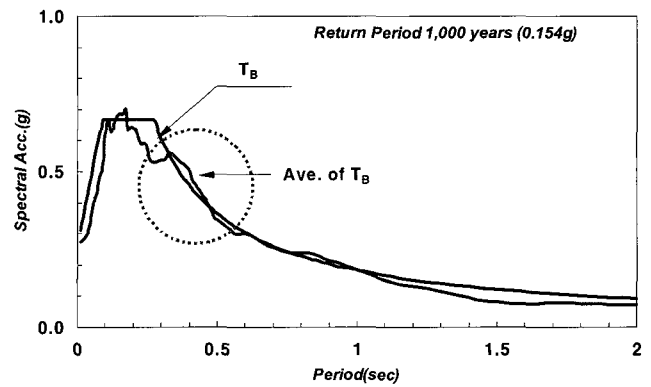
## 3. 증폭계수 적분구간의 변경에 대한 검토

### 3.1 지반의 고유주기를 이용한 지반분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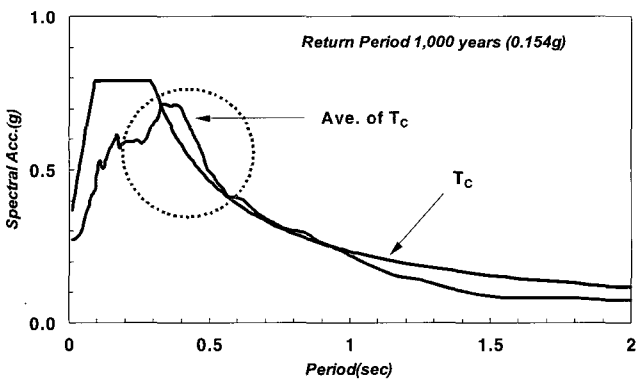
동반논문(II)에서는 지반의 고유주기를 이용한 방법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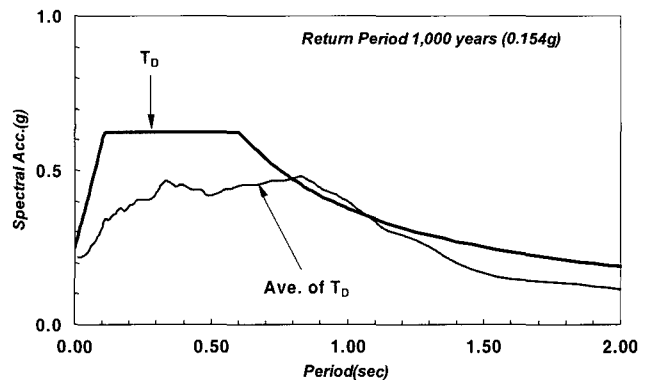
(a)  $T_A$  지반



(b)  $T_B$  지반



(c)  $T_C$  지반



(d)  $T_D$  지반

그림 1 스펙트럴 가속도와 재산정된 설계응답스펙트럼의 비교 (지반분류 기준 - 지반의 고유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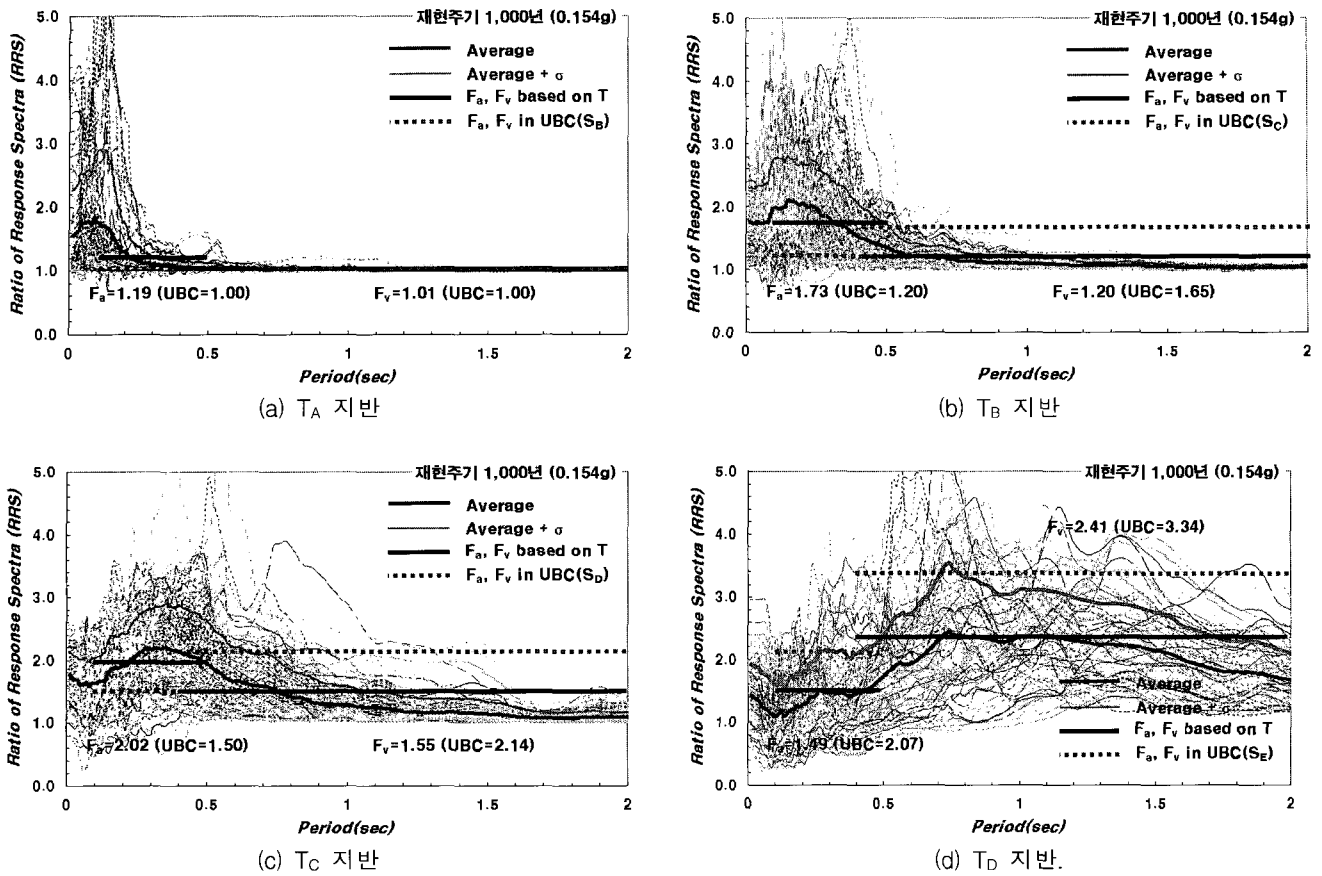


그림 2 재현주기 1,000년에 대한 동일 지반그룹 내에서 RRS 값의 경향성 검토 (지반분류 기준 - 지반의 고유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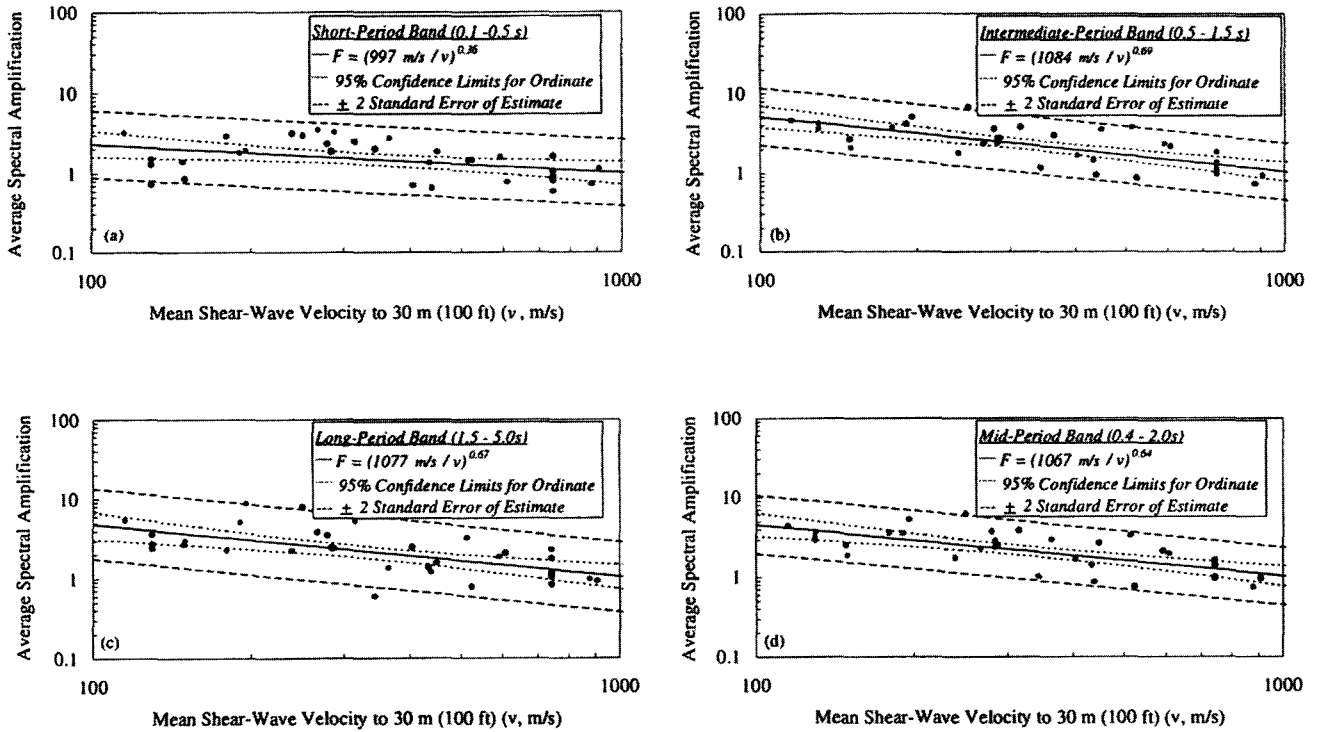


그림 3 다양한 적분구간을 이용한 증폭계수와 Vs30과의 상관관계 (Borcherdt, 1994)

요가 있고, 식 (3)에서 국내 지반에 적합한 적분구간인 a 와 b를 찾아내어 증폭계수도 국내 지반에 적합하도록 적 분구간을 변경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림 5의 RRS<sub>C</sub>와 RRS<sub>D</sub>는 T<sub>C</sub> 지반과 T<sub>D</sub> 지반에서 하 나씩 선택하여 단주기 영역에서 크게 증폭되는 지반과 장 주기 영역에서 크게 증폭되는 지반의 예를 나타낸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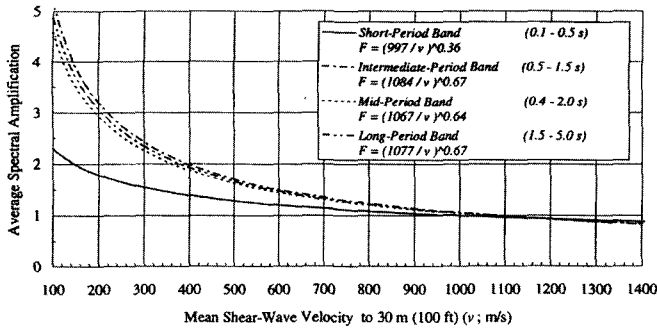


그림 4 평균 스펙트럴 가속도의 증폭정도와  $V_{S30}$ 과의 상관관계 (Borcherdt, 1994)

다. 그림 5를 살펴보면 적분구간의 변경을 검토해야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먼저  $RRS_C$ 에 대하여 살펴보면 적분구간 0.4초~2.0초의 평균값은 1.54이고, 주기 0.9초 근처에서  $RRS_C$ 의 값이 평균값과 비슷해지고 그 이상의 장주기에서는  $RRS_C$ 의 값은 점점 작아져 평균값 보다 상당히 작은 특정한 값에 수렴하게 된다. 따라서  $RRS_C$ 의 경우 적분구간을 0.9초 보다 충분히 길게 설정하면  $F_v$ 의 값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장주기 영역에서 지표면의 스펙트럼 가속도의 증폭정도를 나타내는  $F_v$  값의 정의에 부적합한 값으로 계산된다. 적분구간이 부적합할 경우 현상을 왜곡하여  $F_v$  값을 과소평가하게 되고, 이런 현상으로 인하여 그림 1에서  $T_B$  지반과  $T_C$  지반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원 부분과 같이 스펙트럼 가속도의 평균값 보다 재산정된 응답스펙트럼의 값이 작게 평가된다.

그러나,  $RRS_D$ 의 경우 주기 0.4초 이상에서 어느 특정한 값에 수렴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큰 값을 가지고 있어 적분구간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 그림 2를 살펴보면  $T_A$ ,  $T_B$  그리고  $T_C$  지반의 경우 그림 5의  $RRS_C$ 와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고 적분구간을 재산정 할 필요가 있으나,  $T_D$  지반의 경우  $RRS_D$ 와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어 기존의 적분구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내진설계기준의 경우 단주기 및 장주기 영역에서 스펙트럼 가속도의 증폭 경향이 다른데 반하여, 증폭계수를 적용하기 위한 적분구간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소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으나, 지반의 특성이 다를 경우 증폭계수의 적분구간을 적용하기는 기준도 달리 하여 가급적 현상과 일치하는 설계응답스펙트럼의 작성에 중점을 두었다.

### 3.3 단주기 증폭계수 $F_a$ 의 적분구간에 대한 검토

그림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증폭계수의 적분구간을 변경하려는 이유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F_v$ 의 적분구간과 같이 적분구간 내에서 특정한 값으로 수렴하는 경우 수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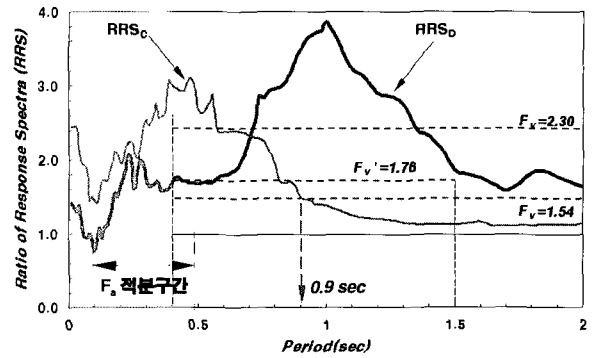


그림 5 증폭계수의 적분구간 및  $F_v$  결정 방법론

는 현상에 의해 증폭계수의 평균값이 과소평가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그림 2의 해석결과에서  $RRS$ 의 경향성을 나타낸 그림을 살펴보면  $F_a$ 의 적분구간 0.1초~0.5초의 경우 적분구간 내에서 특정한 값에 수렴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F_a$ 의 경우 적분구간을 변경해야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3.4 장주기 증폭계수 $F_v$ 의 적분구간에 대한 검토

전술한 바와 같이 1994 NEHRP 기준 이후 제시된 증폭계수의 적분구간은  $F_a$ 의 경우 0.1초~0.5초,  $F_v$ 의 경우 0.4초~2.0초를 이용하고 있다. 표 1에 지반의 고유주기를 기준으로 지반분류를 위한 경계는 간편함을 목적으로 0.1초, 0.3초와 0.5초로 설정하여  $T_A$ ,  $T_B$ ,  $T_C$  그리고  $T_D$  지반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T_D$  지반을 제외할 경우 대부분의 지반은 주기 0.1초~0.5초 사이에서 스펙트럴 가속도의 증폭이 크게 타나날 것으로 추측할 수 있고, 실제로 그림 2에 나타나 있는 지반의  $RRS$ 의 값을 살펴보면 주로 주기 0.5초를 전후로  $RRS$ 의 값에서 중요한 변화가 나타난다.

$T_A$  지반(그림 2(a))에서는 주기 0.5초 이하에서  $RRS$ 의 값은 매우 크게 증폭되지만 주기 0.5초 이상에서는 꾸준히 감소하여 1.0에 수렴한다. 따라서,  $T_A$  지반의 경우 주기 0.5초 이상에서는  $RRS$ 의 값과 기존의 적분구간을 적용하여 계산된  $F_v$  값이 거의 같은 값을 가지므로  $F_v$ 의 적분구간을 변경해야 할 타당한 이유를 찾기 힘들다. 실제로,  $F_v$ 의 값이 1.01이고  $RRS$ 의 평균값을 검토해보면 주기 0.8초 이상부터는  $RRS$ 의 평균값이 1.00~1.01 사이의 아주 좁은 구간에 수렴하고 있어 적분구간을 변경하여 재계산한다고 해도  $F_v$  값의 변화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T_B$  지반(그림 2(b))의 경우 주기 0.5초 이하에서는  $RRS$ 의 값은 매우 크게 증폭되지만 주기 0.5초 이상에서는 점점 감소하여 주기가 커질수록 1.0에 수렴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2(b)에 나타난 바와 같이  $T_B$  지반의  $F_v$  평균값은 1.20으로 나타났고  $RRS$ 의 평균값을 검토해보면 주기 0.66초 이상의 영역에서부터 1.20보다 작아지기 시작하여, 1.5초~2.0초 사이에서는 1.04~1.02 사이의 값으

로 감소추세를 형성하면서 1.0 근처로 수렴하고 있다. 따라서,  $F_v$ 의 정의(Definition)가 주기 0.4초~2.0초(0.5Hz~2.5Hz)에서 RRS의 평균값(엄밀히 말하면 평균값 + 표준편차)임을 고려하면, 주기 1.5초 이상에서 RRS 값은 평균값보다 상당히 작은 특정한 값에 수렴하는 반면 적분 구간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RRS 평균값은 감소할 수 밖에 없다.  $F_v$ 의 의미가 장주기 영역에서 지표면의 스펙트럼 가속도가 암반노두 값보다 증폭되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RRS의 값이 1.02~1.04 사이의 값을 가진다는 것은 증폭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증폭의 의미가 없는 영역을 굳이 적분구간으로 편입하여  $F_v$ 가 과소 평가되는 현상을 유발시키는 것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T_B$  지반에서 발생하는 현상은  $T_C$  지반(그림 2(c))에서도 동일하게 발생되고 있고, 특히  $T_C$  지반에서 적분구간의 재설정이 필요하다. 그림 2(c)에서  $T_C$  지반의  $F_v$  평균값은 1.55으로 나타났고 RRS의 평균값을 검토해보면 주기 0.72초 이상의 영역에서부터 1.55보다 작아지기 시작하여, 1.55초 이상에서 1.10 보다 작은 값을 가지며 주기가 증가할수록 RRS는 꾸준히 감소하여 1.0에 수렴한다.  $T_C$  지반의 경우 주기  $T_B$  지반보다 1.5초 이상에서의 RRS 값이 전체평균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T_C$  지반의 경우 그림 5의 예제와 같이  $RRS_C$ 와 같은 현상이 심하게 발생하여 적분구간의 재설정이 필요하다.

$T_D$  지반(그림 2(d))의 경우 그림 5의  $RRS_D$ 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지반으로, RRS의 값이 1.5초 이상에서도 매우 큰 값을 가지고 있고 특정한 값에 감소하는 경향으로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적분구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그대로 이용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다. 이는 이미 UBC 기준 작성을 위하여 충분히 검증된 방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T_D$  지반의 경우 증폭계수의 산정을 위한 적분구간 변경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T_A$  지반의 경우 적분구간을 변경할 이유가 없으나 변경을 하여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T_B$  지반과  $T_C$  지반의 경우 적분구간을 변경하여 증폭계수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T_D$  지반의 경우 적분구간을 변경하지 않고 현재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 4. 적분구간을 변경한 설계응답스펙트럼의 재작성

##### 4.1 증폭계수 $F_v$ 의 적분구간 결정

지금까지는 적분구간을 재산정해야 하는 근거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러면,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적분구간을 재설정하느냐가 새로운 관심사항이다. 그림 5의 예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적분구간을 달리 적용하면  $F_v$ 의 값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그림 5의 예를 들자면  $F_v$ 의 적분

구간을 0.4초에서 1.50초로 하였을 경우  $F_v$  값은 1.76이 되어 기존의 적분구간인 0.4초에서 2.0초의 1.54에 비하여 매우 크게 증가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F_v$ 를 현상에 비하여 과소 평가하게 산정할 수 있고 과대 평가하게 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재산정된  $F_v$  값의 정의에 충실하고 현상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적분구간을 설정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하여  $F_v$ 의 정의와 문헌의 내용을 재검토해 보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F_v$ 는 RRS, 즉 지표면의 스펙트럼 가속도가 암반노두의 스펙트럼 가속도에 비하여 증폭되는 정도를 주기 0.4초~2.0초에서 평균값+표준편차의 값으로 나타내는 평균을 내포하고 있는 상수이다. 또한, 3.2절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적분구간을 0.4초~2.0초로 설정한 것은 1989년 Loma Prieta 지진기록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했을 경우 여러 적분구간의 결과가 비슷하게 나타났고 대략 0.4초~2.0초이 결과와 비슷했기 때문에 적분구간을 0.4초~2.0초로 설정하였다. 이는 미국 서부해안지역의 지반조건은  $T_D$  지반과 비슷한 경향을 가졌기 때문에  $F_v$ 의 적분구간 0.4초~2.0초는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국내 지반의 대부분은  $T_B$  및  $T_C$  지반에 해당하고, 이를 지반조건이 전혀 다른 국내 지반에 같은 적분구간을 적용하였을 경우  $F_v$ 의 값은 과소평가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RRS의 값이 1.0 근처의 값을 가지고 감소추세를 형성하며 수렴하는 구간의 경우 적분구간에서 제외하여  $F_v$ 의 과소평가를 해소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수치적인 값으로 검토를 해보면 RRS의 평균값이 1.0을 기준으로 10% 이내의 증폭, 즉 1.1보다 작은 경우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10%로 정한 이유는, RRS의 평균값이 지표면의 스펙트럼 가속도가 암반노두의 스펙트럼 가속도보다 10% 정도 증폭되었다는 의미이고, 10%는 상대적으로 충분히 작은 값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림 2(b)의  $T_B$  지반의 경우 RRS의 평균값이 1.1 보다 작아지는 주기는 0.94초 이상에 해당하고, 그림 2(c)의  $T_C$  지반은 1.55초 이상에서 RRS의 값이 1.1 이하로 감소하고 주기가 증가할수록 1.0 근처에 점점 감소추세로 수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F_v$ 의 적분구간을 0.4초~1.5초로 설정을 하였다. 적분구간을 0.4초~1.5초로 정한 이유는  $T_B$  지반보다는  $T_C$  지반의 경우 증폭계수의 적분구간을 변경해야 할 이유가 더욱 명확하였기 때문이다.

##### 4.2 설계응답스펙트럼의 재작성

본 절에서는  $F_v$ 의 적분구간을 변경하여 재산정된 증폭계수를 이용하여 설계응답스펙트럼을 재작성하였다. 설계응답스펙트럼을 작성하기 위하여는 증폭계수  $F_a$ 와  $F_v$ 가 필요하고, 증폭계수  $F_a$ 의 경우 3.3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적분구간을 변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결

과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표 3에는 동반논문(II)에서 지반의 고유주기를 이용하여 지반을 분류하였을 경우 재산정된 증폭계수  $F_a$  값을 나타내었고, 표 4에는 적분구간을 변경하기전의  $F_v$  값을 나타내었다.

표 3 단주기 증폭계수  $F_a$ (지반분류 기준 - 지반의 고유주기)

Site Period T (sec)		0.110g		0.154g		0.220g	
		Average	$\sigma$	Average	$\sigma$	Average	$\sigma$
$T < 0.1$	$T_A$	1.19	0.273	1.20	0.297	1.22	0.319
$0.1 \leq T \leq 0.3$	$T_B$	1.73	0.401	1.73	0.411	1.80	0.446
$0.3 < T \leq 0.5$	$T_C$	2.05	0.431	2.02	0.418	1.96	0.448
$0.5 < T$	$T_D$	1.62	0.502	1.49	0.512	1.39	0.522

표 4 적분구간 변경전의 장주기 증폭계수  $F_v$ (지반분류 기준 - 지반의 고유주기)

Site Period T (sec)		0.110g			0.154g			0.220g		
		Ave.	$\sigma$	$F_v$	Ave.	$\sigma$	$F_v$	Ave.	$\sigma$	$F_v$
$T < 0.1$	$T_A$	1.01	0.016	1.03	1.01	0.018	1.03	1.01	0.021	1.04
$0.1 \leq T \leq 0.3$	$T_B$	1.09	0.083	1.18	1.11	0.096	1.20	1.13	0.123	1.25
$0.3 < T \leq 0.5$	$T_C$	1.28	0.227	1.51	1.31	0.240	1.55	1.34	0.233	1.58
$0.5 < T$	$T_D$	2.02	0.427	2.45	1.99	0.418	2.41	1.94	0.437	2.37

$T_A$ ,  $T_B$  그리고  $T_C$  지반에 대하여 증폭계수  $F_v$ 의 적분구간을 주기 0.4초~1.5초로 설정하여 재계산한 결과는 표 5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기존의  $T_A$ ,  $T_B$  그리고  $T_C$  지반의 표기 방법과 구분하기 위하여  $T_{A,NF}$ ,  $T_{B,NF}$  그리고  $T_{C,NF}$ 로 표기하였고,  $T_A$  지반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적분구간을 변경하기 전후의 값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으나, 증폭계수 산정 과정의 통일성을 위하여  $T_A$  지반도 적분구간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T_D$  지반의 경우 적분구간 0.4초~2.0초에 해당하는 값으로 적분구간 변경전의 값이다.

재현주기 1,000년의 결과를 중심으로 서술해보면, 적분구간을 변경하기 전의 값인 표 4의  $F_v$  값과 변경후의 값인 표 5의  $F_v$  값에서 예상했던 바와 같이  $T_A$  지반의 경우 1% 정도의 변화가 발생하여 적분구간 변경으로 인한 변화는 미미하였다.  $T_B$  지반의 경우 적분구간 변경전  $F_v$

는 1.20이었으나 변경후 1.27로 약 5.8% 정도 증가하였고,  $T_C$  지반의 경우 1.55에서 1.72로 10.9% 정도 증가하였다. 재현주기 500년 및 2,400년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견되다. 여기에서도, 당초 예상했던 바와 같이  $T_C$  지반에서 적분구간에 대한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그림 6에는 기존의  $F_a$  값인 표 3의 값과 새로 산정된  $F_v$  값인 표 5를 이용하여  $T_B$  지반 및  $T_C$  지반의 설계응답스펙트럼을 재산정( $T_{B,NF}$ ,  $T_{C,NF}$ )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6(a)와 그림 1(b)의  $T_B$  지반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본 절에서 재산정한  $F_v$ 를 이용한 설계응답스펙트럼이 기존의 적분구간을 적용하여 구한 값보다 주기 0.4초 부근에서 개선된 것을 볼 수 있다.  $T_C$  지반의 경우 적분구간 변경전의 그림 1(c)와 적분구간 변경후의 그림 6(b)를 비교해보면 개선효과가 더욱 뚜렷하여 적분구간을 재산정하여 계산한 값이 해석결과의 현상을 더욱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적분구간 변경전과 변경후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그림 6의 스펙트럴 가속도 축인 y-축과 주기 축인 x-축을 로그단위를 이용하여 그림 7에 다시 나타내어 보았다. 그림 7을 살펴보면 적분구간을 변경하여 재계산한  $F_v$ 를 이용하여 재작성된 설계응답스펙트럼( $T_{B,NF}$  및  $T_{C,NF}$ )이 기존의  $S_C$  및  $S_D$  지반의 설계응답스펙트럼과 비교하여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적분구간을 변경하기 전의  $T_B$  지반과  $T_C$  지반의 설계응답스펙트럼보다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에는 재산정된  $F_v$  값을 각각의 RRS와 함께 나타내었고,  $T_A$  지반과  $T_D$  지반의 경우 생략하였다. 따라서, 3장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적분구간의 적용성에 대한 검토 결과 새로운 적분구간을 적용하였을 경우 기존의 적분구간을 이용하였을 경우보다 설계응답스펙트럼 작성면에 있어서 개선의 효과가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림 8에는 적분구간을 변경하여 재산정된 증폭계수를 이용하여 각 지반종류별 설계응답스펙트럼을 제안하였다. 또한, 그림 9에는 현재 내진설계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V_{S30}$ 과 지반의 고유주기를 기준으로 지반을 분류하였을 경우 각 지반종류에 대한 설계응답스펙트럼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표 5 적분구간을 0.4초~1.5초로 변경하여 재산정된 증폭계수  $F_v$

지반의 고유주기 T (sec)		0.110g			0.154g			0.220g		
		평균	$\sigma$	$F_v$	평균	$\sigma$	$F_v$	평균	$\sigma$	$F_v$
$T < 0.1$	$T_{A,NF}$ *	1.02	0.022	1.04	1.02	0.024	1.04	1.02	0.028	1.05
$0.1 \leq T \leq 0.3$	$T_{B,NF}$	1.12	0.111	1.23	1.14	0.128	1.27	1.17	0.164	1.34
$0.3 < T \leq 0.5$	$T_{C,NF}$	1.37	0.297	1.67	1.41	0.311	1.72	1.45	0.300	1.75
$0.5 < T$	$T_D$ **	2.02	0.427	2.45	1.99	0.418	2.41	1.94	0.437	2.37

\* NF = New Site Factor의 약자

\*\*  $T_D$  지반의 경우 증폭계수 적분구간은 0.4초~2.0초로 적분구간의 변경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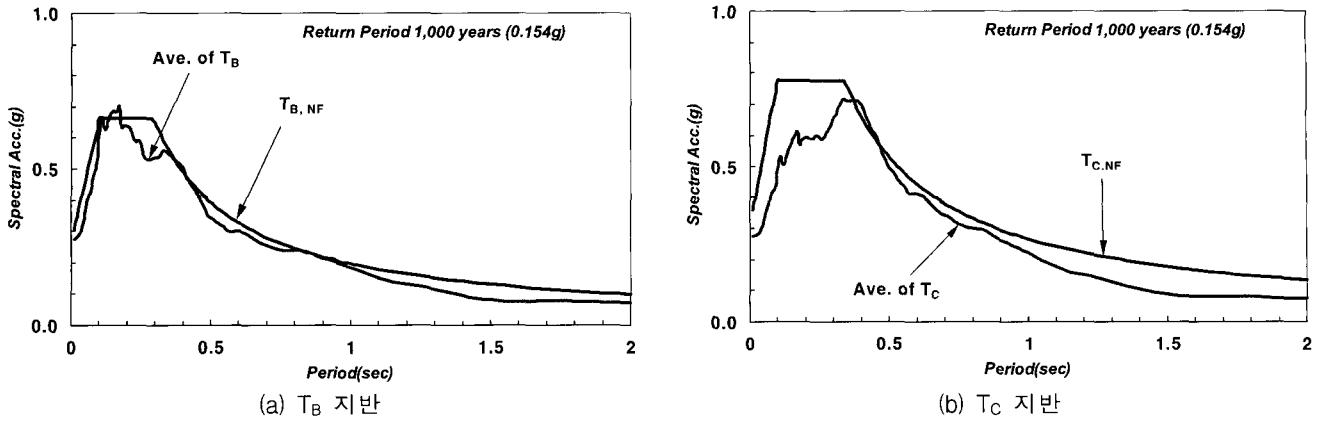


그림 6 증폭계수 적분구간 변경후 설계응답스펙트럼과 스펙트럴 가속도의 평균값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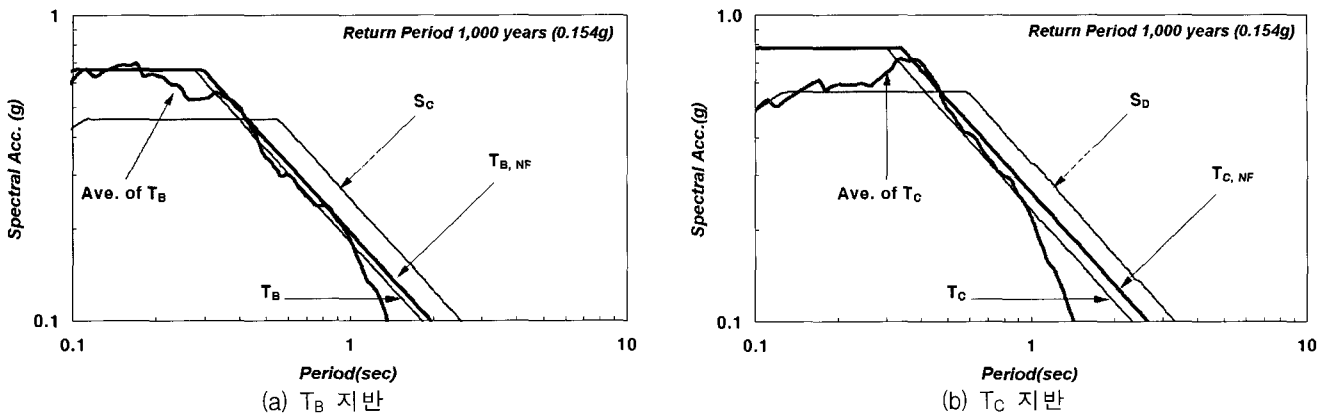


그림 7 로그단위로 나타낸 재현주기 1,000년에 대한  $F_v$ 의 적분구간을 변경하여 재작성한 설계응답스펙트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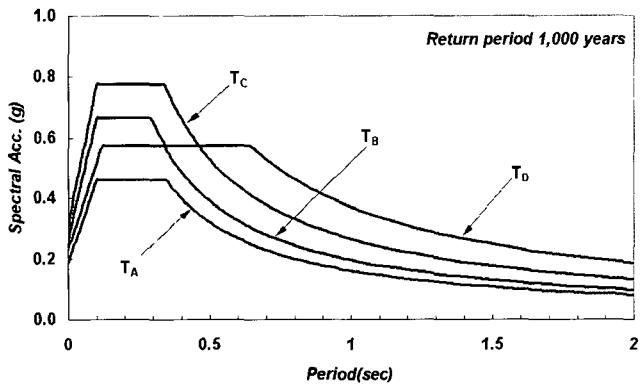


그림 8 재현주기 1,000년 지진에 대한 지반종류별 설계응답스펙트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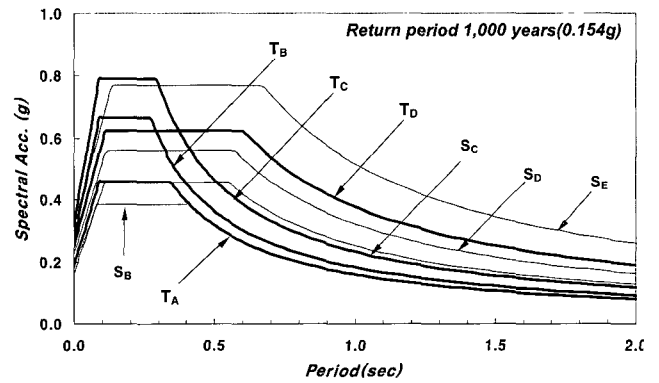


그림 9  $V_{S30}$ 과 지반의 고유주기를 기준으로 지반분류시 각 지반종류별 설계응답스펙트럼의 비교 (재현주기 1,000년)

##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결과에서 지반의 고유주기를 이용하여 지반분류 하는 방법이 가장 우수한 방법으로 결정되으나, 지반분류 기준을 변경하여 개선하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 지반조건에 적합하도록 지반증폭현상을 평가할 수 있는 증폭계수의 계산방법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단주기 영역의 증폭계수  $F_a$ 의 적분구간은 변경할 사유가 없어 현재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결정하

였다. 이는 RRS 값이  $F_a$  적분구간에서는 감소추세를 형성하며 수렴하는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장주기 영역의 증폭계수  $F_v$ 의 적분구간은 현재 주기 0.4초~2.0초에서 주기 0.4초~1.5초로 변경하여 재계산을 하였다. 적분구간을 변경하여  $F_v$ 를 재산정한 결과  $T_B$  지반과  $T_C$  지반에서 응답스펙트럼과 스펙트럴 가속도의 평균값에서 차이가 나타났던 부분이 해결되었고, 국내 지반특성에 더 적합한 설계응답스펙트럼을 작성할 수 있었다. 따라서, 증폭계수의 적분구간 변경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판단된다.



## 참고 문헌

1. 윤종구, 김동수, 방은석 “국내 지반특성에 적합한 지반 분류 방법 및 설계응답스펙트럼 개선에 대한 연구 (I) - 국내 내진설계기준의 문제점 분석”, 한국지진공학회 논문집, 제10권 2호(통권 제48호), 2006, pp. 39-50.
2. 윤종구, 김동수, 방은석 “국내 지반특성에 적합한 지반 분류 방법 및 설계응답스펙트럼 개선에 대한 연구 (II) - 지반분류 개선방법”, 한국지진공학회 논문집, 제10권 2호(통권 제48호), 2006, pp. 51-62.
3. NEHRP, *Recommended Provisions for Seismic Regulation for New Buildings and Other Structures*, FEMA 302/303, February, Part I. (Provisions) and Part. 2(Commentary), 1997.
4. Dobry, R. and Martin, G. “Development of Site-Dependent Ratio of Elastic Response Spectra(RRS),” *Proceeding of the Workshop on Earthquake Site Response and Seismic Code Provisions*, 1999.
5. Borchardt, R.D., "Estimates of site-dependent response spectra for design(methodology and justification), *Earthquake Spectra*, Vol. 10, pp. 617-654.
6. 윤종구, 김동수, “국내 지반특성에 적합한 설계지반운동 결정 방법에 대한 연구”, 한국지진공학회논문집, 제 8권 제3호, 2004, pp. 23-32.